

## SK '리밸런싱' 효과...1년 안돼 종속회사 대폭 줄었다

등록 2025.02.26 07:00:00 | 수정 2025.02.26 10:50:24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사진=SK그룹) 2024.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SK그룹이 지난해 고강도 리밸런싱(사업 구조재편)을 통해 조직 슬림화를 진행하며 종속회사를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무구조 및 가업구조 강화에 따른 운영 효율화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올해도 리밸런싱 기조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지난해 추진한 리밸런싱 경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장용호 SK(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박상규 SK이노베이션, 곽노정 SK하이닉스, 유영상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 CEO 20여명이 참석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강화에 이은 운영 효율화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716개였던 SK(주) 종속회사는 지난해 3분기 기준 660개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속회사는 78개 감소, 22개 증가하며 3개 분기 만에 56개 감소했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종속회사가 195개 증가, 51개 감소해 144개 늘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SK(주) 종속회사 수는 지난 2018년 260개에 불과했으나 2023년 716개로 3배 정도 불어났다. SK그룹이 반도체, 배터리, 수소 에너지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신사업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계열사 수가 지나치게 많아 중복 투자와 비용 낭비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SK그룹은 지난해 고강도 리밸런싱 작업에 나섰고 그 결과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강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서울=뉴스시스] 황준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 활동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최 회장을 비롯한 20여개 그룹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미국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2.19. hwang@newsi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계열사 등) 현황'을 보면 동일인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SK그룹 소속회사는 2월 기준 205개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된 219개보다 14개 감소한 수치다. 세계에서는 이대로 리밸런싱 기조가 이어지면 올해 안에 200개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K 각 계열사는 앞으로 운영 효율화에 더욱 집중해 체질을 혁신하고 AI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할 체력을 비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 대비를 위해 올해도 운영개선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본질적으로 보유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의미한다"며 "보다 신속하게 운영개선에 나서고 경영 내실을 강화하게 되면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